



5면

네 번째 차메안삼마를 지정 현판식

# 전주매일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음 6월 9일) 제33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새만금 잼버리 준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 김관영 도지사, 잼버리 성공 개최 위해 최종 점검 나서 영내의 프로그램, 침수·폭염 등 안전대책 집중 점검 "참가자 안전 최우선으로 빈틈없이 준비해달라" 당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세계 청소년들이 기상을 펼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행사 준비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섰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 지사는 25일 부안군에 위치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국과 잼버리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김 지사의 이날 현장점검은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행사의 최종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조직위 관계자, 도 출입기자단들과 함께 잼버리 시설 조성 과 영내·외 프로그램 등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먼저, 상·하수도 및 임시하수처리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등 숙영지인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개영식 및 폐영식과 케이팝(K-POP) 콘서트 개최를 대비해, 잼버리병원·미디어센터로 사용될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도 준비를 마쳤으며, 직소천수상과정활동장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과정활동장도 대원들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와 차별화를 위해 다인한 영내·외 프로그램(57종, 174개)을 마련했고 잼버리 영지 인근 14개 시군 지역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최근 우려가 제기된 폭우대책으로는 먼저 영지 내부 및 외곽 배수로 정비를 완료, 영지 내에 100개의 간이펌프 시설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영지 외곽으로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새만금호 수위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진입로 주차장 등 영지 주요

장소를 세척으로 포장해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침수피해와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스카우트 전 대원의 텐트 안 바닥에 팔레트를 설치한다.

만약, 심각한 폭우로 인해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비상수송버스를 통해 학교, 실내체육관 등 342개의 실내구호소로 긴급대피를 실시한다. 폭염대책으로는 영내 그늘시설 조성(당골터널, 7.4km, 그늘터널 1,720개소)이 완료됐고,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57개의 안개분사시설도 운영된다. 또한, 스카우트 대원들의 탈수 예방을 위해 수분(생수, 음료) 및 염분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잼버리 활동이 불가능한 폭염 발생 시에는 덩굴타널과 서늘공간 등 지정된 폭염 대피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게 할 예정이다.

대다수의 해외 스카우트대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함에 따라 새만금 영지로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왕복 2,150대의 버스로 참가자 입·출국 시간대별로 분산 수송이 진행된다.

대규모 수송에 따른 교통대책으로는 '교통·수송상황 통제소'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수송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지점에 통제인원을 배치하는 한편 경찰의 지원을 받아 안전한 수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새만금 세계잼버리 교통대책이 포함되어 주요 이동로에 교통안내 및 휴게소 이용편의를 지원한다.

8월 2일 개영식과 8월 11일 폐영식, 문화교류의 날 등 스카우트대원 전용이 참가하는 대집회장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중인파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참가국 스카우트 캠프별 관람구획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입퇴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시 병목현상 방지 통제선 설치, 비상통로를 사전확보하고 밀집상황 발생 시 조기 분산을 위한 행사장 내 완충 공간 확보, 무대·관람석 간 바리케이트 및 객석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주요지점에 안전요원과 경찰이 주요 장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세계잼버리 전 기간 동안 위기상황별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영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잼버리경찰서, 잼버리소방서와 실시간 상황공유로 각종 사고,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김관영 예방·대응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임시산별진료소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도 적극 대응한다. 일일 176명의 의료인력이 상주하는 잼버리병원과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전북대병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등 5개의 협력병원을 통해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나눠 스카우트대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아울러 전 세계 스카우트대원의 안전을 위한 식사를 위해 식음료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식자재부터 조리시설·환경 등 위생관련 전 과정을 수시로 점검해 식중독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행사 준비상황 최종보고를 받고 "최근 언론 등에서 우려를 제기해온 폭염·폭우, 감염병 등 우려사항을 말씀해 해소하고 빈틈없는 행사준비를 위해 마지막까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조직위에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안전대책을 세우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일주일 후인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새만금과 전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한류문화 확산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25일 부안 잼버리공원 드림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최종 점검을 갖고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도, 도내 호우 피해자에 지방세제 지원

### '피해 사망자·유가족 대상 도세 감면동의안' 도의회 통과 따라

전북도는 지난 24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호우피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

제하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된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면제된다. 또,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멸실·파손된 재산(건축물, 자동차, 기계장치 등)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징수유

여가 가능하며,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법인 등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투자유치 단계부터 공장 가동까지 '원스톱으로'

### 새만금개발청, 이차전지 특화단지 7대 후속대책 추진

#### 킬러규제 개혁, 국내 최고 수준 세제지원·임대료 완화

#### 안정적인 기반시설 공급, 산업용지 145만6000㎡ 공급

#### 초격차 기술 선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발굴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안전 최우선 특화단지 조성 등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이차전지 투자에 최적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만족하는 최고의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25일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에 최근 1년간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6조 600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가운데, 지난 20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조기지원 이

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개혁, 투자유치 단계부터 공장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일괄(원스톱) 행정지원 등 특화단지 지정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후속대책은 △킬러규제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구축 △국내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및 임대료 완화(9%

~1%) △유용리티 안정적 공급 및 산업용지 145만6,000㎡ 적기 공급 △초격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발굴 추진 △인력양성 지원 및 근로자 정주환경 조성 △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안전이 최우선인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김경안 청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고 했다.


한편, 전북연구원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8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예상 누적 매출액 54조 원, 생산 유발 65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19조8,000억원, 일자리 창출 20만1,000명 등이다. /뉴스



KOSCA  
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

## 도전과 개혁의 역사!

### '전문건설인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회장 임근홍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키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전라북도의 전문건설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업역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12대 회장단·감사·운영위원

회장	임근홍 (유)유평건설		
부회장	김동수 (유)도곡건설	김삼문 (유)향림조경	박찬용 (유)성지토건
	김진호 (유)대안건설		
감사	이선한 (유)금정건설	유홍중 (주)누리토건	
운영위원	강상원 (유)반석	강훈희 (유)대가건설	김대식 아라온(주)
	김만성 (유)보성건설	김용배 (주)천우에스엔씨	방한웅 (유)도암건설
	신현철 (유)서영건설	안길환 (유)우정건설	오성권 (유)세경건설
	윤현철 (주)한성개발	임완택 (유)석금	임찬희 (유)모두건설
	장철성 (유)하늘채건설	전성배 (유)아일건설	조성호 (주)일성건설
	최영재 (유)성주건설	홍동남 (유)정우건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http://www.kosca35.or.kr